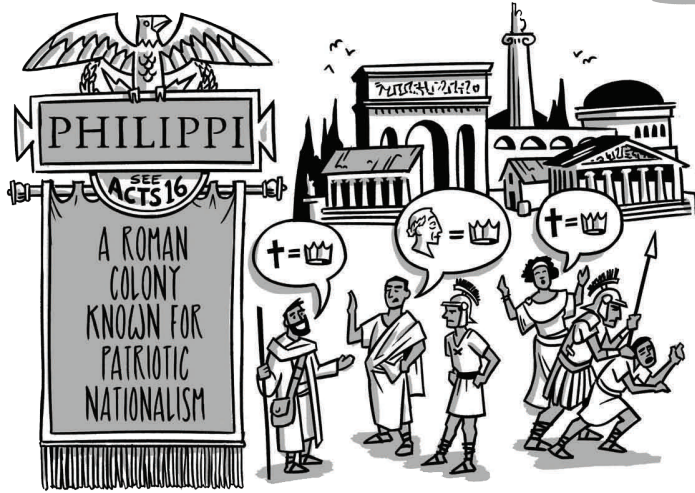


빌립보서 Philippians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바울은 여러 번 옥에 갇혔고, 이 편지도 옥중에서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 중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바울에게 헌금도 전달하고, 감옥 안에 있는 그를 실제로 돕게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할 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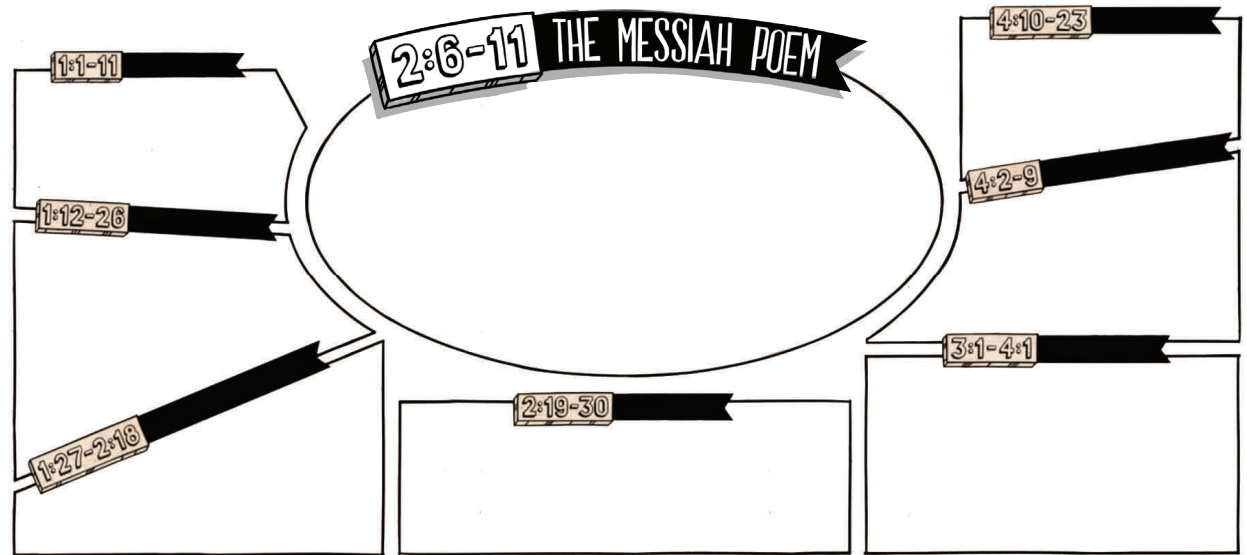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하나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생각들을 담은 짧은 글이나 일화들이 배열되어 있고, 모두 이 편지의 2장에 있는 하나의 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메시아의 성육신과 삶과 죽음과 부활 및 승천 이야기를 아주 예술적으로 재진술합니다. 바울은

서론: 빌립보서 배경과 구성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동유럽에서 시작한 첫 번째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케도니아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퇴역군인들로 가득했고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이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선포했을 때 저항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성도들은 계속해서 저항과 심지어 박해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의 도를 활발하게 따르는 공동체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시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각각의 짧은 글들의 핵심 단어 혹은 아이디어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선포한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의 투옥으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것으로 낙관하지만, 처형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에는 그다지 나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빌1:21)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랑이 바울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처형당해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석방되면 더 많은 예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으니 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에 그가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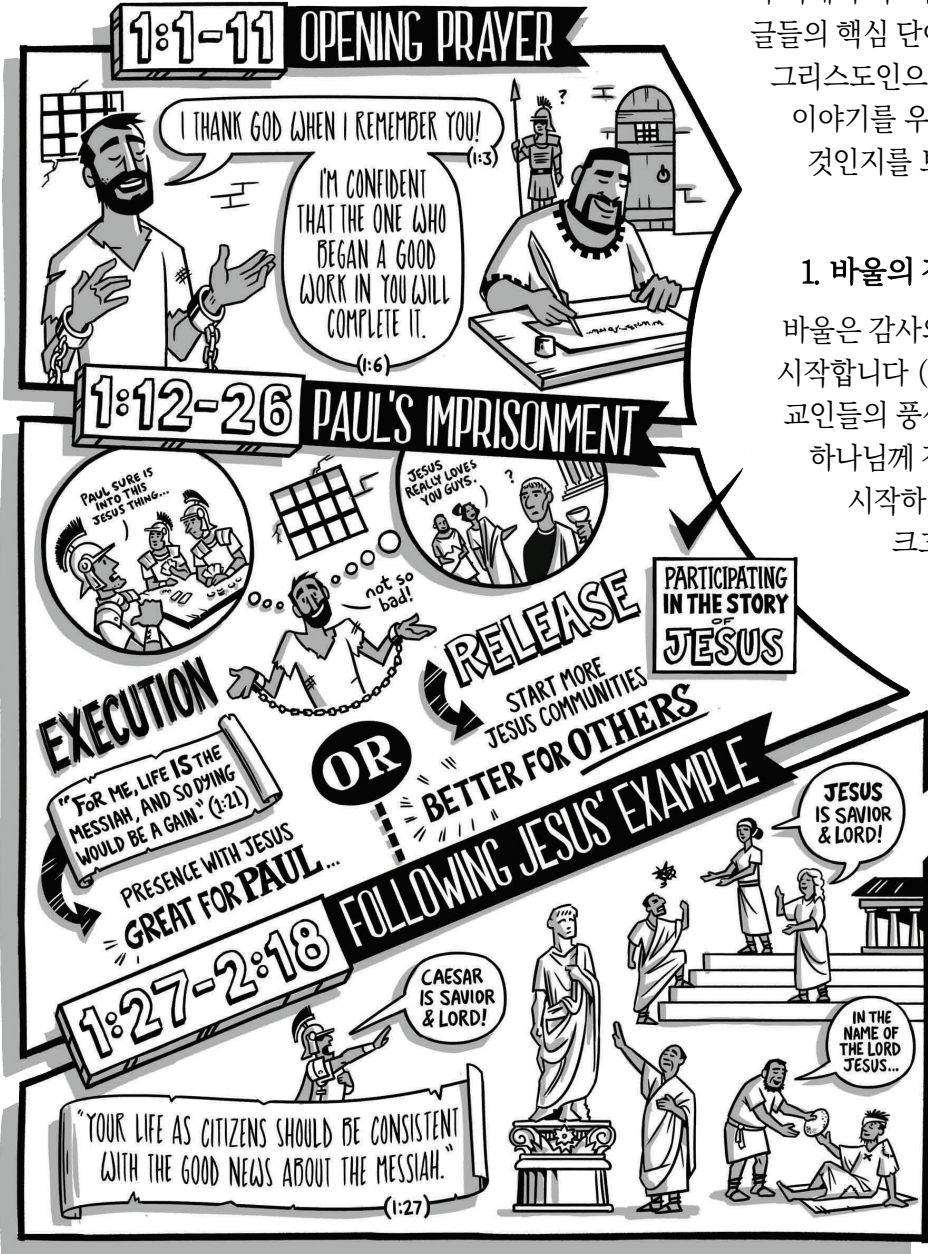
여기서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집중해 봅시다.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은 바울에게 진정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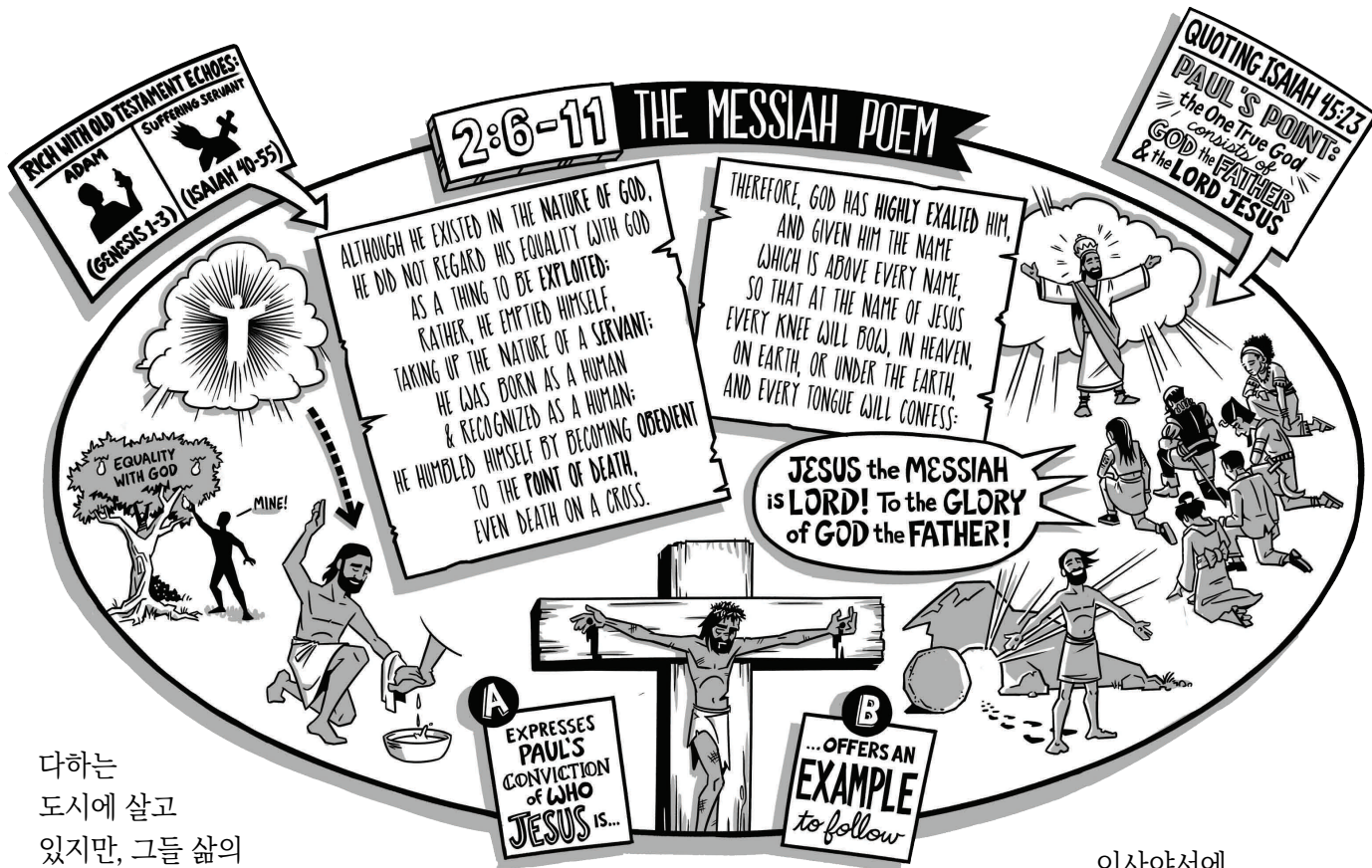
이제 바울은 빌립보인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범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메시아의 복음과 일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1:27).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제국에 충성을

1. 바울의 감사 인사와 옥중 생활 나눔

바울은 감사의 기도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빌 1:1-11).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풍성한 나눔과 신실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시작하신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당시 그들의 분명한 관심사였던 그의 수감 생활에 대해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건 소풍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유익했습니다. 로마 간수들과 관리들 모두 바울이 예수님을





다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 삶의
 방식은 또 다른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형성되어야 했습니다. 박해받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장에 나오는 바울의 위대한 시로 이어집니다.

3. 메시아 시

이 시에는 구약 본문들의 메아리로 가득한데,
 특히 아담이 거역한 이야기와(창 1-3),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울려나옵니다. 외위돌 만한 시로, 복음
 이야기를 정말 아름답게 요약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메시아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동등하신 상태로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시도했던 아담과
 달리, 메시아는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셨고, 사람이 되셨으며,
 모든 이들을 위한 종이 되셨을 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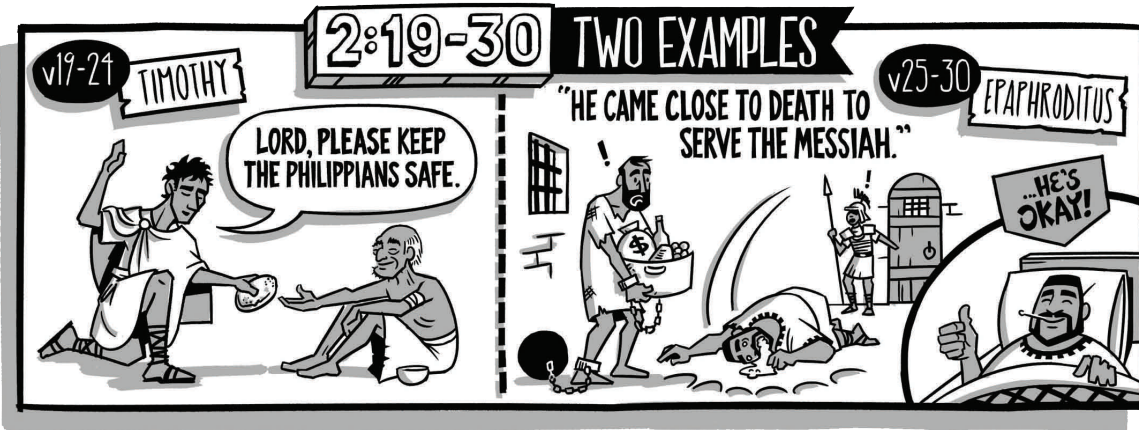
심지어는 수치 당하는 일까지
 자초하셨습니다. 로마의 처형 도구 위에
 죽기까지 나아감으로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메시아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부활을 통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것들의 왕으로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선언은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45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깨닫게 된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분이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의 확신을
 표현하며, 나아가 그 제자들이 닦아야 할 삶의
 본보기로 예수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4.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범

그래서 바울은 곧이어 두 가지 이야기를
 말합니다. 먼저 디모데에 관해, 그 다음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을 닮은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과 함께 보냄 받은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기에 이르렀습니다 (빌2:25-30). 바울을 돕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바울을 불쌍히 여기사, 서로 친구를 잃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살아 숨쉬는 본보기요, 추천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요구를 했던 이들은 여전히 바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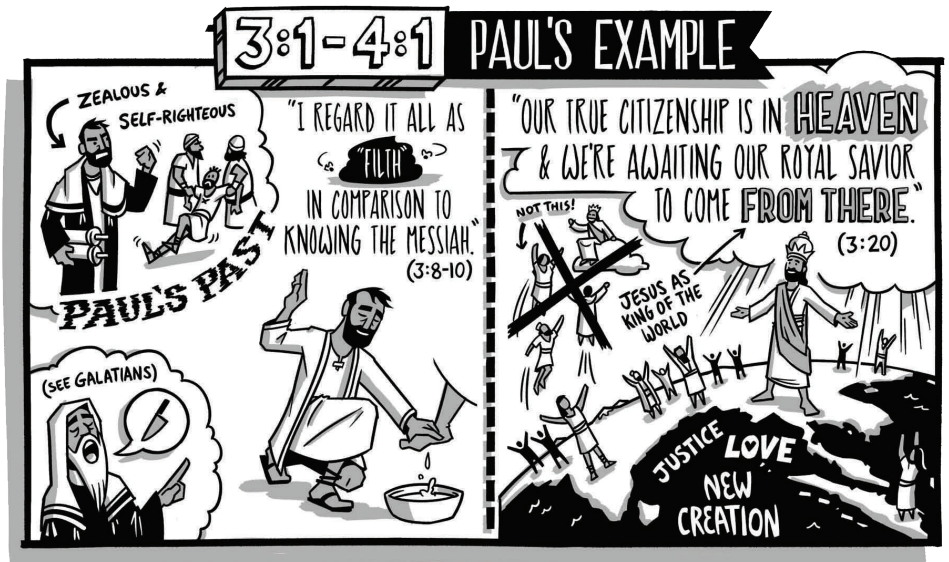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바울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열정을 다해 율법의 계명들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 모든 지위와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가 실제로 사용한 원어 단어는 훨씬 더 원색적입니다 (빌3:8-10).

5.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또 다른 예로 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바울은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그분의 고난과 희생적인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죽음을 통해 그 너머의 부활로 이르게 하시리라는 소망을 갖고 그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 하루 빨리 천국 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빌3:20). 사실 천국이란 초월적인 장소로, (언제 어디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 뜻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가 우리 왕 구세주께서 거기로부터 여기에 다시 오셔서 정의로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변혁시키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새 창조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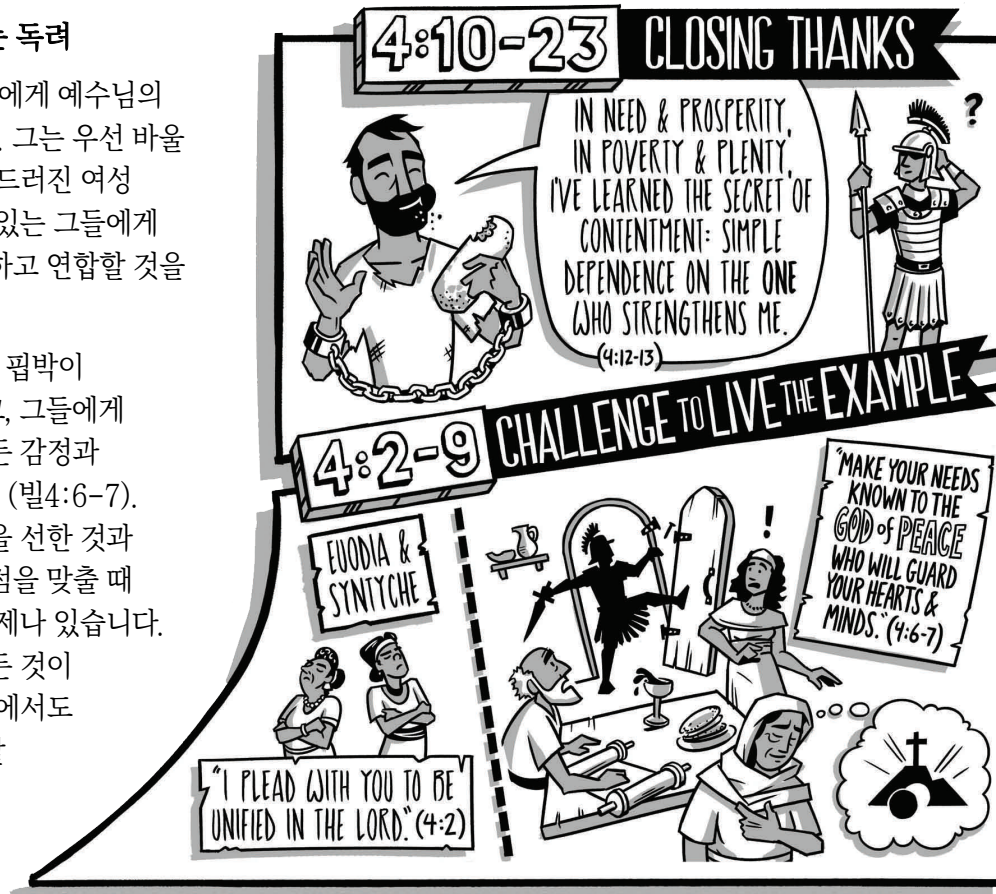
6.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내라는 독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우선 바울 곁에서 함께 일했던 교회 안의 두드러진 여성 리더들을 언급합니다. 갈등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 화해하고 연합할 것을 간청합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핍박이 있음에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감정과 필요를 쏟아놓으라고 강권합니다 (빌4:6-7).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 생각을 선한 것과 진실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오는 것입니다. 불평할 일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은혜를 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울로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결론

바울은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의 희생적인 선물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의 투옥과 가난의 시간들이 그에게는 진정한 어려움이 아님을 빌립보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에게는 훌륭한 스승들이 되어, 그는 어떤



A UNIQUE WINDOW INTO PAUL'S HEART & MIND

- HE SAW HIS LIFE AS A REENACTMENT OF JESUS' STORY
- HIS AWARENESS OF JESUS' LOVE & PRESENCE GAVE HIM HOPE & HUMILITY
- KNOWING JESUS IS DEEPLY PERSONAL & TRANSFORMATIVE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것입니다. 그를 힘있게 하시는 한분만 단순히 의지하면 되는 것이며 (빌4:12-13), 자신이 고난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들여다 보이는 특별한 창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생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재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가 몸속 깊이 와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암울한 시간에도 소망과 겸손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언제나 인격적으로 깊이 변화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따르라고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1:1-11 OPENING PRAYER

I THANK GOD WHEN I REMEMBER YOU! (1:3)

I'M CONFIDENT THAT THE ON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OMPLETE IT. (1:6)

1:12-26 PAUL'S IMPRISONMENT

PAUL SURE IS GETTING THERE! (1:12)

JEWS REALLY GIVE YOU GAINS? (1:13)

not so bad!

EXECUTION OR **RELEASE**

FOR THE LIFE OF THE MESSIAH, AND SO DYING WOULD BE A GAIN. (1:21)

START MORE JESUS COMMUNITIES

BETTER FOR OTHERS

FOLLOWING JESUS'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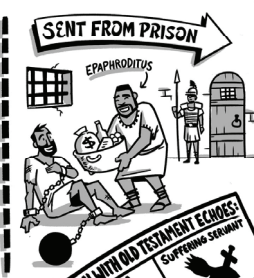
PARTICIPATING IN THE STORY OF JESUS

1:27-2:18 FOLLOWING JESUS' EXAMPLE

CAESAR IS SAVIOR & LORD!

YOUR LIFE AS CITIZEN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GOOD NEWS ABOUT THE MESSIAH. (1:27)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2:6-11 THE MESSIAH POEM

ALTHOUGH HE EXISTED IN THE NATURE OF GOD, HE DID NOT REGARD HIS EQUALITY WITH GOD AS A THING TO BE EXPLOITED; RATHER, HE EMPTIED HIMSELF, TAKING THE NATURE OF A SERVANT; HE WAS BORN AS A HUMAN & RECOGNIZED AS A HUMAN; HE HUMILED HIMSELF BY BECOMING OBE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THEREFORE, GOD HAS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SO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WILL BOW, IN HEAVEN, ON EARTH, OR UNDER THE EARTH, AND EVERY TONGUE WILL CONFESS:

JESUS the MESSIAH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A EXPRESSES PAUL'S CONVICTION OF WHO JESUS IS...

B ...OFFERS AN EXAMPLE to follow

2:19-30 TWO EXAMPLES

v19-21 TIMOTHY

LORD, PLEASE KEEP THE PHILIPPIANS SAFE.

v25-30 EPAPHRODITUS

"HE CAME CLOSE TO DEATH TO SERVE THE MESSIAH."

...HE'S OKAY!

A UNIQUE WINDOW INTO PAUL'S HEART & MIND

- HE SAW HIS LIFE AS A REENACTMENT OF JESUS' STORY
- HIS AWARENESS OF JESUS' LOVE & PRESENCE GAVE HIM HOPE & HUMILITY
- KNOWING JESUS IS DEEPLY PERSONAL & TRANSFORMATIVE

4:10-23 CLOSING THANKS

QUOTING ISAIAH 45:23

PAUL'S POINTS: the One True God consists of GOD the FATHER & the LORD JESUS

IN NEED & PROSPERITY, IN POVERTY & FLENTY, I'VE LEARNED THE SECRET OF CONTENTMENT: SIMPLE DEPENDENCE ON THE ONE WHO STRENGTHENS ME. (4:12-13)

4:2-9 CHALLENGE TO LIVE THE EXAMPLE

EPHONIA & SYNTICHE

"MAKE YOUR NEEDS KNOWN TO THE GOD OF PEACE WHO WILL GUARD YOUR HEARTS & MINDS." (4:6-7)

"I PLEAD WITH YOU TO BE UNIFIED IN THE LORD." (4:2)

3:1-4:1 PAUL'S EXAMPLE

PAUL'S PAST

ZEALOUS & SELF-RIGHTEOUS

"I REGARD IT ALL AS FILTH IN COMPARISON TO KNOWING THE MESSIAH." (3:8-10)

NOT TRUST!

JESUS AS KING OF THE WORLD

"OUR TRUE CITIZENSHIP IS IN HEAVEN & WE'RE AWAITING OUR ROYAL SAVIOR TO COME FROM THERE." (3:20)

(SEE GALATIANS)

JUSTICE LOVE NEW CREATION